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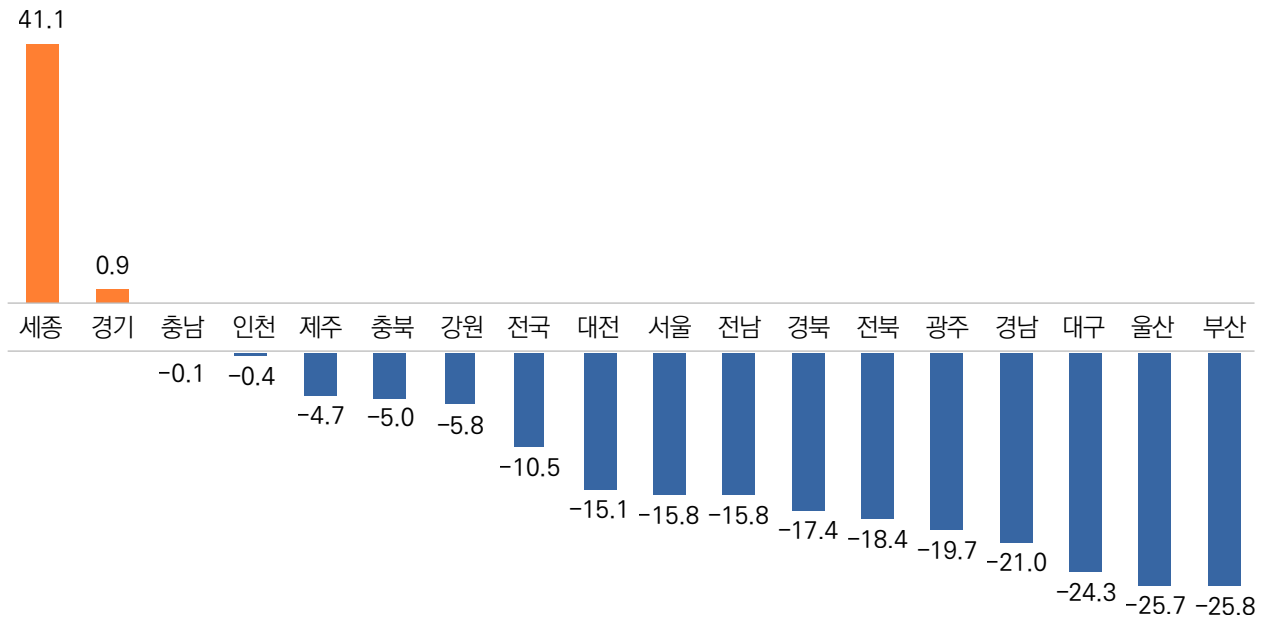
[장래인구추계 : 17개 시도편] 30년 후 인구, 다른 모든 지역은 감소하나 세종·경기는 증가

- 통계청에서 최근까지의 시도별 인구변동 요인(출생, 사망, 인구이동) 추이를 반영해 '장래인구 추계(시도편): 2022~2052년'을 발표했다. 향후 30년 뒤 우리나라 각 시도별 인구는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이를 통해 살펴본다.
- 우선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,167만 명 대비 2052년 4,627만 명으로 10.5%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,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세종(16만 명, +41.1%)과 경기(12만 명, +0.9%)만 증가하고,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.
-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%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(-85만 명, -25.8%), 경남(-69만 명, -21.0%), 대구(-58만 명, -24.3%) 순이다.

[그림] 총인구 전망 (중위추계 기준, 만 명)



[그림] 30년 후 시도별 총인구 증감률 전망 (2052년 기준, 중위추계 기준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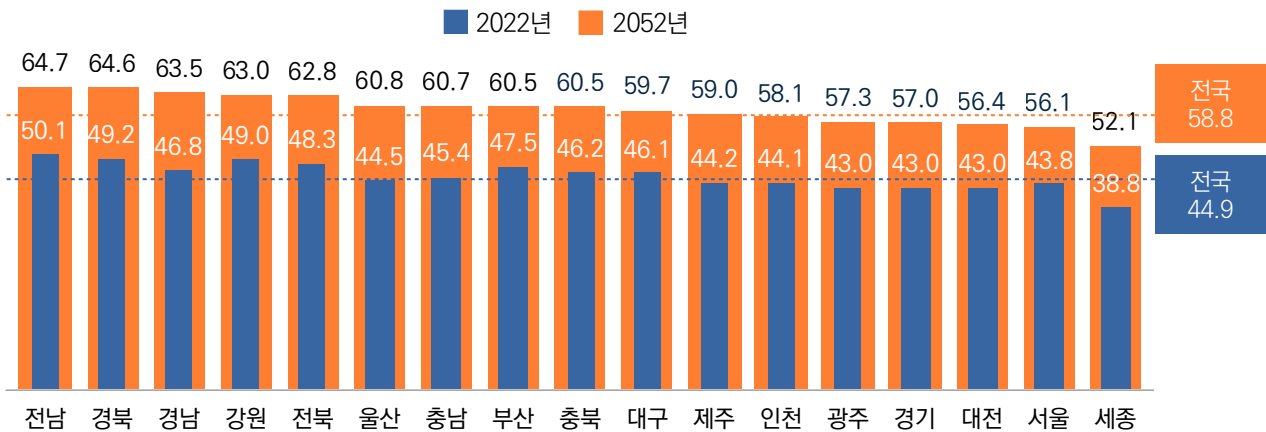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장래인구추계(시도편): 2022~2052년, 2024.05.28.

중위연령, 2022년 44.9세 → 2052년 58.8세!

- 이번에는 시도별 중위연령(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, 한 가운데 사람의 연령)을 살펴본다. 2022년 우리나라 전국 기준 중위연령은 44.9세였는데 30년 뒤인 2052년에는 58.8세로 무려 14세가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.
- 2052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64.7세로 가장 높고, 세종이 52.1세로 가장 낮았으며, 60세를 넘어서는 경우는 17개 시도 중 9개(경상도, 전라도, 강원도, 충청도, 부산, 울산)에 달했다.

[그림] 시도별 중위연령 변화 (세)

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장래인구추계(시도편): 2022~2052년, 2024.05.28.

전라·경상·강원, 30년 후에 인구 절반이 노인!

- 앞으로 30년 후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인구(65세 이상) 비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?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은 17.4%로 고령사회(14% 이상)에 해당했는데 2052년은 초고령사회(고령인구 20% 이상)를 훨씬 넘어서는 40.8%로 예측했다. 전라도, 경상도, 강원도는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고령인구(65세 이상)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.

[표] 시도별 고령인구(65세 이상) 비중 (상위 5위)

	2022년	2052년
전국	17.4%	40.8%
1	전남(24.4%)	전남(49.6%)
2	경북(22.7%)	경북(49.4%)
3	전북(22.3%)	경남(47.8%)
4	강원(21.9%)	강원(47.1%)
5	부산(20.9%)	전북(46.9%)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장래인구추계(시도편): 2022~2052년, 2024.05.28.